

제 138회 KMA LEADERS FORUM 강연 요약

일시 : 2019년 10월 11일 (금) 06:40~09:00 장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하모니볼룸)



SPEAKER 알파고 시나씨 아시아엔 기자

- . 현) The AsiaN 편집장
- . 현) 아시아기자협회 대외협력 팀장
- . 전) 터키 지한통신 한국 특파원
- . 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 전) 뉴스위크 칼럼니스트
- .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
- .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 저서 : 세계 독립의 역사, 누구를 기억할 것인가
- . 방송 : 마리텔, 임윤선의 블루베리,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대한외국인, 소사이어티 게임, 비정상회담, 매블스 등

Challengers of the era! 화폐 인물로 만나는 글로벌 도전정신

1. 민족주의와 화폐

- 화폐는 한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통용되는 성질이 있어 역사적으로 민족의 의식을 반영하고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됨. 따라서 시기별로 화폐를 살펴보면 민족주의의 역사를 알 수 있음

2. 화폐로 알아보는 각 나라별 민족주의

- 중국 : 주로 지폐의 가장 큰 단위에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음. 중국의 100 위안에는 인민대회당이 인쇄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 외 50 위안에는 티베트의 포탈라 궁전이, 20 위안에는 좡족 자치구인 구일린 등이 그려져 있어 다민족 국가임을 드러냄
- 베트남 : 50만 동에는 공산주의의 시초인 호치민 생가가 그려져 국가 이념으로 공산주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1만 동에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근해원유 플랫폼을 넣어 영토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함
- 이란 : 강경파 집권 당시 5만 리알에 원자핵과 그 주변의 전자를 상징하는 로고를 새겨 핵개발 의지를 드러냈으나 온건파가 집권한 현재 5만 리알의 2판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짐
- 유로존 : 다수의 나라가 모여있는 유로존의 경우 유럽에 시기별로 유행했던 건축 스타일을 반영한 가상의 건물을 넣어 화폐 발행. 이를 통해 동일 문명 이었음을 드러냄

3. 화폐 속 위인이 남긴 교훈

- 화폐에 제일 많이 나온 인물은 엘리자베스 2세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동카리브 달러 등 8개 나라의 화폐에 등장함. 서양권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독보적임을 알 수 있음
- 키르기스스탄 화폐에 등장한 쿠르만잔 다투카는 러시아에 대항한 강력한 여성지도자로 1000명이 넘는 부대를 창설해 30년간 자국 국민을 지켜냄. 그녀의 도전정신은 화폐에 새겨져 후손에게 전수됨
- 베네수엘라 화폐에는 시몬 로드리게스와 그의 제자 시몬 볼리바르가 인쇄됨. 방황하던 시몬 볼리바르에게 스승 시몬 로드리게스는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을 이끌도록 강력한 영향을 주었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베네수엘라를 그란콜롬비아로 독립시키는 업적을 이뤄냄

제 138회 KMA LEADERS FORUM 현장스케치

일시 : 2019년 10월 11일 (금) 06:40~09:00 장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하모니볼룸)

